

“민주당, 전략도 비전도 없었다”

■ ‘총선 평가 토론회’ 당 정체성 확립 등 지적 쏟아져 “견제론 등 네거티브 전략이 총선 참패 불러” 6월 중순 전당대회 열어 새 지도부 선출기로

통합민주당의 4·9 총선 패배에 대해 정체성 있는 대안 없이 견제론 등 네거티브 전략으로 일관한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한반도전략연구원이 16일 주최한 ‘4·9총선 평가와 정국전망’ 토론회에서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대선과 총선, 두 번의 선거를 통해 시대정신으로서의 ‘민주화’가 갖는 정치적 동력은 완전히 상실됐다”며 “국민사적으로 볼 때 보수세력이 전체 의석의 2/3을 넘은 것은 ‘민주화 시대’에서 ‘신 보수 시대’로의 전환 완료를 상징한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어 “국민 다수의 시선에서는 민

주당은 개혁 공천 이후 네거티브 전략으로 일관한 듯하다”며 “인사정책 비판, 대운하 반대, 영어 공교육 반대 등을 넘어선 포지티브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데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정체성 문제는 ‘우향우’나 ‘좌향좌’의 문제가 아니라 ‘중도 진보’의 노선을 명확히 하지 않은 데 있다”며 “중도개혁은 이미 시효만료된 개념이며, 따라서 새로운 진보는 손학규 대표가 이미 강조한 대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실사구시적 진보”라고 주장했다.

김영태 목포대 교수는 “이번 총선은 경제적으로 보수적이었던 유권자들이 경제문제가 쟁

점으로 부각하자 보수적 성향을 드러낸 선거”라며 “민주당은 자신의 정체성과 자기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인상 P&C 대표이사도 “민주당의 불분명한 가치는 국민에게 무능으로 비칠 수 있다”며 “민주당은 세계화 시대에 조응하는 한국적 민주주의 가치정립에 주력하고 가치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를 열어 오는 6월 중순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유종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합당돼 당 체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하다. 당헌·당규와 당원이 정비 안 된 상태에서 이번 전대는 창당 수준의 전대가 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6월15일이나 22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23일부터 이틀간 18대 국회 임무와 민주당의 역할을 주제로 한 총선 당선자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교육정책 비판하는 손학규 대표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6일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학생을 무한경쟁으로 몰아 넣고 있다”며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檢, 양정례 사무실 전격 압수수색

창조한국당 이한정 당선자 집·사무실도

학력·경력 위조, 거액 특별당비 납부 등의 의혹이 일고 있는 비례대표 당선자들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친박연대 양정례(30·여) 국회의원의 당선자의 공천 배경을 둘러싼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가 16일 새벽 전격적으로 양 당선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검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양 당선자의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뤄진 것으로 향후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검찰은 이날 오전 0시경부터 서대

문구에 위치한 건풍건설, 건풍사회복지회 사무실과 양 당선자의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해 컴퓨터, 회계 서류 등 수 상자 분량의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야간에 집행이 가능한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관계자들은 건풍건설 사무실 문이 닫혀 있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건풍건설이 입주한 5층짜리 건물은 양 당선자의 모친 것이며 1층에는 양 당선자 모친이 회장으로 있는 건풍건설과 양 당선자가 연구관으로 일했다는 건풍사회복지회 사무실이 함께 위치해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와 앞서 선관위에 요청해 받은 자료를 비교·분석하면서 양 당선자가 자신의 학력, 경력 등을 고의로 부풀리지는 않았는지, 어떻게 1억원이 넘는 돈을 마련해 특별당비로 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수원지검 공안부(윤용길 부장검사)도 이날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57) 당선자의 서울 역삼동 사무실과 압구정동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해 컴퓨터, 예금통장,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아직 혐의가 확인된 것은 없고 필요하다면 소환 조사를 계획”이라며 “(특별당비 등) 의혹이 제기된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확보된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강한 野 건설”

전갑길 광산구청장등 8명 통합민주당 입당

전갑길 광산구청장, 유재신 광주시의원과 전양복 광주시 광산구의회 의장 등 기초의원 6명이 16일 통합민주당에 입당했다.

이들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총선에서 지역민들이 압도적 지지를 보여준 통합민주당에 입당,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견제할 강력한 야당 건설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금은 민주세력이 총단결을 해야 할 때”라며 “호남의 목소리를 모아 중앙 정부에 전달하고 광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을기자 dok2000@

민주 “지역 조직을 선점하라”

차기 당권 좌우 ‘6월 전대’ 앞두고 기선잡기 신당계-구 민주계-낙선인사들 물밑 신경전

통합민주당이 6월 중순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기로 한 가운데 지역조직 확보를 둘러싸고 정파별 물밑경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바다 조직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여하가 당권의 향배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 대의원 구성 등을 놓고 벌써부터 ‘수(數)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것. 특히 대통합민주신당계와 구 민주당계 간의 신경전이 날카롭다.

현재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 대의원 등 조직정비 작업은 ‘백지상태’에 가깝다. 정당법상 합당 후 3개월 이내에 시·도당 개편대회를 열도록 돼 있어 5월17일까지 조직정비가 완료돼야 하고 전대 투표권을 갖는 대의원 구성 작업도 시급하다.

대의원 구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위원장 선출과 관련, 열

린우리당의 후신인 신당계는 총선 공천 확정자를 그대로 임명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공천자를 많이 배출한 신당 출신 당권주자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밖에 없어 구 민주당계는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구 민주당계 인사는 “옛 열린우리당 출신들이 지역 간판으로 나서면 민주당이 변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 균형적 배치가 중요하다”며 “조직강화특위 등을 구성, 공모를 통해 지역실사 및 심사를 거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조직정비 방식 등 전대 ‘물’을 정할 전대준비TF 구성을 놓고도 양 계파가 부딪혔다. 당초 TF의 실무진용이 옛 열린우리당 출신 당직자들로부터 구성되자 구 민주당계가 강력 반발해 결국 양 계파가 5대5로 균등참여하는 쪽으로 재조정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와 관련, 구 민주당계인 박상천 공동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대를 통해 새롭고 강력한 야당으로 재탄생하려면 신당과 구 민주당이 화합적 결합을 이뤄야 하며 관련 기구를 균형있게 구성해야 한다”며 “중도개혁노선으로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국민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화합적 결합도 노선에 이견이 없을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당 출신 핵심인사는 “지역위원장 임명을 정체성 문제로 비화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고 일축했다.

대의원들이 선출권을 갖는 시·도당 위원장에 ‘우군’을 배치하기 위한 당권주자간의 경쟁도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세규함을 위해서 선거를 지르면서 조직기반을 다진 현역 의원을 누가 많이 확보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낙선 인사들도 지역위원장 자리 등을 통해 바다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들의 연대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당권주자들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동영 “떠나고 싶다”

“휴식 필요한 때” 미국행 가다

4·9 총선에서 낙선, 정치인생의 위기를 맞게 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당분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미국행을 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의장 시절이던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참패 직후 독일에 떠났던 정 장관이 두 번째 ‘여장’을 꾸리게 되는 셈. 2년 전 독일에 체류했던 기간은 2개월 보름 정도였지만 이번 미국 체류는 훨씬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선 참패 후 고심 끝에 서울 동작을 출발해 통해 부활을 꿈꿨지만 한

나라당 정몽준 의원에 패하면서 정치 생명 자체가 위기를 맞았다. 한때 당내 최대 계파였던 ‘정동영계’가 공천과정에서 궤멸 수준으로 위축되면서 운신의 폭도 극히 좁아졌기 때문이다. 정국의 큰 물줄기가 바뀌고 현실 정치에서 분명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다시 열릴 때까지 상당한 시간을 위신상당해야 하는 환경이다.

정 장관의 한 측근인사는 16일 “비록 이기지는 못했지만 총선에서 사심없이 최선을 다한 만큼 대선 직 후보라는 마음이 많이 활기차진 상태”라며 “당분간 현실정치와는 거리를 둘 것이고 미국행을 염두에 두고 있다. 체류기간은 생각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지만 정계은퇴는 아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엘레강스 700여명 국내 최대 규모 정통 서푸드 레스토랑

OPEN행사 실시 4월 20일까지 20%할인 행사

700여명 최대규모의 레스토랑 엘레강스가 창당에 박차를 가합니다. 엘레강스는 창당과 함께 700여명의 최고의 요리사들이 모여 정통 서푸드 레스토랑을 선보입니다. 자연에서 맛볼 수 있는 신선한 재료, 양식, 일본요리까지 한자리에 있습니다.

음식	음료	정식	음료	기타
1. 1인용 정식 12,000원 2. 2인용 정식 22,000원 3. 3인용 정식 32,000원 4. 4인용 정식 42,000원	1. 1인용 음료 2,000원 2. 2인용 음료 4,000원 3. 3인용 음료 6,000원 4. 4인용 음료 8,000원	1. 1인용 정식 12,000원 2. 2인용 정식 22,000원 3. 3인용 정식 32,000원 4. 4인용 정식 42,000원	1. 1인용 음료 2,000원 2. 2인용 음료 4,000원 3. 3인용 음료 6,000원 4. 4인용 음료 8,000원	1. 1인용 정식 12,000원 2. 2인용 정식 22,000원 3. 3인용 정식 32,000원 4. 4인용 정식 42,000원

엘레강스 예약문의 062-971-2020

www.kwangju.com